

<2018년 8월 29일 수요말씀>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

본 문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 이번 주는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줬습니다.
- ◎ 오늘은 주일말씀과 새벽에 전해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핵심을 깊이 전해주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잘 깨닫고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육>도 영광스럽게 살고, <영>도 영광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

- ◆ <지금>은 늘 ‘잔칫집 역사’입니다.
- ◆ <지난 십자가 기간 때>는 월명동에 오면 선생이 없으니,
모두 ‘하나님, 성령님, 저 왔어요. 적적하지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 보고 가요.’ 하며 기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 ◆ 그때는 <상상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 살았는데,
이제는 ‘**지나가다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요, **기쁨의 시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대로 뒤바뀌었습니다.

- ◆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20여 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환난과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역시,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갑니다.

- ◆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시대에게 버린 바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시대에게
버린 바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버렸는가 하니,
최고 죄인들만 사는 곳에 버린 바 되었습니다.

- ◆ <환난과 고난>은
선지자 때도, 사사 때도, 중심인물 모세나 다윗 때도 받았고,
그리스도는 가장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구상의 최고 영광의 사명에 해당되는 만큼, 고난을 받습니다.

- ◆ <예수님>은 그 고난을 ‘죽음’으로까지 받았습니다.

<육신이 죽는 고난>으로 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곧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시고,
메시아로서 2000년 동안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 왔습니다.

◆ 그 2000년 역사 동안의 희망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를 펴신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안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이니,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은 아예 그 육신이 죽음으로 버림을 받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시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 그러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한 사람을 보냈으나,
시대가 무지한 고로 그 역시 ‘버린 바’ 되었습니다.

* 잠시 쉰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에서 ‘영광의 역사’로 계속 진행해 나가지만,

<세상 역사>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로 끝나 버린다. <육>으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 놓으신 것을 보면,
<구약>은 ‘종의 역사, 고난의 역사, 환난과 고통의 역사’였지만
<신약>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자녀로서 대해 주는 사랑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되었다.

그리고 <신약, 자녀로서 대해 주는 세계>에서
이제는 ‘성약, 애인으로 대해 주는 영광의 세계’가 되었다.

인생들은 살면서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곧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소망을 갖고 막연히 기다리고
좋은 날을 원하며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한 세계’가 아니다.
<완벽히 예정된 세계>다.

<육적으로 산 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았어도
‘육의 영광’으로 끝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며 산 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 육도 영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
- 이것은 100% 예정되어 있다.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긴 자들>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영광을 누린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해 주시고,
천사들은 시중을 들면서 영광을 받게 한다.

* 잠시 쉰다.

◆ 설교 전 성령님께 고하기를,

“설교하다가 눈물이 날까 봐 못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요? 너무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며 끌려다니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해하려고 하는 역경 속에서
버림받고 살던 때를 생각하면,

- <땅>으로는 분해서 울컥하고

- <하늘>로는 감격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무지해서** 그러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기다리던 자들>은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신해 버렸습니다.

◆ <이 시대>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으나,
세상이 버리고, 배신하고, 악평하고, 짐승같이 대했습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별말을 다 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선고를 받고 가면서도,
그때도 변함없이 주를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행복하다> 노래도 지어 불렀습니다.

* 참고: <나는 행복하다> 가사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하다 말들 하지만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이란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야
성자, 나는 행복하지요 성자 말씀하시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 ◆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결혼하면 ‘남편’ 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듯이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도 서로 사랑하면 되니,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 ◆ 그때 시대 선고를 받고서 성자에게 “나 사랑해요?” 하니,
성자는 내가 숨을 못 쉬게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끝나는데, 그까짓 환난이 문제야?
십자가가 문제야? 고통이 문제야? 혼자 있으니까 개인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만나고 너무 좋다.’ 했습니다.

- ◆ 그때 성자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네 육신을 쓰고, 너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
둘이 재미있게 시대 역사를 감당하고, 뜻을 펴고 가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 ◆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밖에서는 네 몸이 된 자가 성령 역사를 해 나가니 걱정 말아라.
따르는 자들이 다 나가지도 않고,
너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간다.” 했습니다.

- ◆ 그리고 성령님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10년의 시간을 귀히 사용해라.
개인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네가 죽을 때까지 1m 밖을 벗어나지 않고 네 옆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 ◆ 그리고 내게 약속하시며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너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
그래서 네가 떠나면 나도 하늘나라로 간다. 가는 날은 똑같다.”

하셨습니다.

- ◆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시대에게 버림을 받아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판>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간판입니다.

- ◆ 성자는 이 간판을 내게 주시며,

“지구 세상의 마지막 간판이다.”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 ◆ 환난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넌 남자인데 나 좀 생각해 줘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고 사랑하며 했습니다.

* 잠시 쉰다.

- ◆ <그리스도>는 고난과 환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갑니다.
<시대 하와>도 그러합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 ◆ 사명이 큰 만큼 환난과 역경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못 할 정도입니다.

- ◆ <선생이 없을 때>, 시대 하와도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을 받고,
버림을 받고 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퍼부어 주며
뜨거운 성령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불에 찔려 녹을 정도로
뜨겁게 주를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 ◆ 이같이 했기에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따르는 자들>도 ‘진리의 말씀’ 과 ‘성령의 불’ 을 받아
열심히 뛰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 ◆ 그동안 섭리사는 민족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선생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종 환난과 어려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반만년 역사 중에 이 같은 환난은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에 쓰러진 자를 붙잡아 주면서 왔습니다.

- ◆ 민족이 막고, 각양각색으로 심하게 막으니,
〈주〉는 하나님께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안 이겼으면, 하나님도 갚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 남편은 누가 자기 부인에게 손을 대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성자는 “너를 건들면 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시며,
상상도 못 하게 세계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행한 대로 받고 다 끝났습니다.

받고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 잠시 쉰다.

1. 〈지난날의 고난〉은 ‘앞날의 영광’을 위해 씨를 뿌린 것이다.

2. 농부가 씨를 뿌리면, 비바람을 맞고 땀별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예정

되어 있다. <영광>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고난은 앞에 있고 영광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조개껍질 안에는 반드시 조개 알맹이가 붙어 있습니다.

조개를 좋아하는 갈매기도 조개 알맹이를 먹기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알맹이가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으니

부리도 쪼아보고 발로 차고 그래도 안 열리니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껍질을 부서지게해서 먹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큰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각자의 고민들 걱정, 근심 염려가 칼날 같이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자.’ 하지만. 걱정이 옵니다.

비 오듯, 장마지듯 오는 것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화, 고난>만이 아닙니다.

이는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조개를 먹기 위해서

조개껍데기 까는 것처럼 힘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잠시 쉰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좋은 일’이 있다.

고로 어떤 일이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문제를 풀어 가고
어려움을 풀어 가야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 이 없어진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선생도, 따르는 자들도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 이다.

누구든지 생활 가운데 ‘하늘 앞에 책임 분담을 못 한 것,
자기 책임을 못 한 것, 제대로 살지 못한 것’
-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 사는 것이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해결’ 을 해야 된다. 안 하고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든 문제들〉도 앉아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로 풀어야 끝난다.

〈선생이 잠언을 받을 때〉도 생활에서 할 일을 하니까 그에 해당되는
잠언이 와서 받는 것이다. 이같이 〈성경을 풀 때〉도 그러하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생활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죄의 계곡’ 에서 넘어올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죄악의 세계’ 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1. 〈성경의 모든 것〉은 풀고 ‘행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2. 〈하나님 말씀의 문제〉를 풀고 행해서 해결해야 ‘영광의 길’ 을 갈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구시대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문제>를 풀지 못하니, 아직도 “<주>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며 기다린다.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하지도 않는다.

3. 선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 영계로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갈 수가 없다. 한 번 떠난 몸은 다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육신>은 못 가고, 가면 ‘영’ 이 간다.” 했다.

결국 근본은 ‘성자’ 가 오시는 것을 알게 됐다.

<말씀 마무리>

- ◆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과 버린 자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해 주고 왔습니다.

- ▶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신부로 변화된 영들>을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사랑하고,
육 일생 동안, 영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라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 ▶ 140권 분량의 책을 쓰고, 5만 잠언을 쓰고,

그리고 기도해서 해야 될 일들까지 다 했습니다.

▶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도

모두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그 좁은 관 같은 곳에 살았어도,

운동하고 뛰고 달려서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 <주>가 가는 나라마다 버렸어도,

복음을 넣어 주고 할 일을 다 했더니,

이제는 각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따라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후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 오늘 말씀은 아주 크고도 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앞으로 1000년 동안 해도 끝이 없습니다.

<후대>는 선생이 씨 놓은 시대 성경을 보면서

- 1000년 동안 각종으로 설교도 하고,

- 또 ‘이와 같이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끝났으니, 이제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자.” 하셨습니다.

◆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며 끝까지 하니,

결국 살아나서 모두 ‘영광의 역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 ◆ 하나님은 많은 버림을 받고, 불신을 당하고, 종교 전쟁과 각종 쓰라린 일들을 당하시면서 6000년간 역사해 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영광의 역사, 일주일 중에 일요일 같은 역사,
1000년 혼인 잔치 역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 ◆ 환난과 역경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살았으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좋으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됐으니,
이제 모두 멋있게 살기 바랍니다!

- ◆ 지금은 <부활의 역사>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광 받고 누리는 것이 남았으니 낙심치 말고,
<부활>도 다 완전하게 되어야겠습니다.

<부활된 사람>은 부지런히 영광도 받고, 계속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 ◆ 모두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처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볍게 넘기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가길 축원합니다!